



Raonatti Force In the Philippines

- NOV. 11 -

ate Bona, ate ester,
ate soo, kua min
and kua yun.

Korean

mahal ko ka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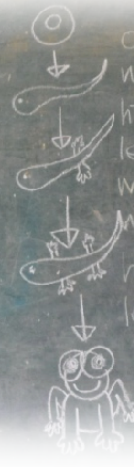
Ate Bona, Ate Ester
Ate soo, kua min
And kua yun.

MAHAL KO
KOREAN kayo

live in a house
or bear baby bear
so very fat
so very sexy
so very cute
tssseuck.



One tadpole in the
wriggle wriggle
hind legs out fore
leaping leaping
wriggle wriggle
wriggle wriggle
hind legs out fore
leaping leaping





1. 약속 하지 말 것.
2. 응당 고마워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 것.

조금은 인정 없어 보이기도 한 이 두 문장이 해외봉사를 떠나는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수칙이라고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인한 기대감을 그들에게 심어준다거나, 자신이 마치 우월한 위치에서 선심 쓰는 양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일까?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이들보다 꾸밈없는 웃음을 가진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는 이러한 딱딱한 문장들이 이론상에서나 가능한 일임을 깨닫곤 한다. 헤어짐의 아쉬움 속에 또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작은 일에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그들에게서 자꾸만 베풀고 싶은 욕심을 마음속에 채워간다.

우리가 그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들, 함께 팔짱 끼 수 있어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하는 그들. 생각새도 다르고, 말도 서로 잘 통하지 않지만, 이런 그들이 있기에 머나먼 타국에서도 고향과 같은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아직 조금은 불공평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들과 같은 봉사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처음의 각오가,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막중한 부담감과 기대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어쩌면 봉사자 자신이 무언가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들이, 밤 한 공기과 술 한잔, 한숨의 낯잡과 땀벌에서의 소중한 땀 한 방울에 만족할 줄 아는 그들을 성취의 대상으로 포장해온 것은 아닌지.

Aurora. 때론 이름에 걸맞지 않는 무언가에 실망하곤 했던 우리는 극지방의 자기장 섬광만큼이나 아름답었던 오로라의 야자수 숲과 태평양 해변의 시원스런 경치에 혀를 내둘렀다. 생전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 헤어짐의 눈물로 조건 없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보여준 그들에게 감동하고 또 감동했다.

연필이 점차 깎이듯 연필심으로 무언가를 쓸 수 있게 되듯, 우리를 감싸고 있는 껍질과 잣대들을 점차 깎아내 그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써내려 가고자 했던, 바로 우리들의 11월 이야기다.



Contents

1. Home-stay
2. Halloween day
3. Aurora community
4. Tae-kwon dance class
5. valle cruz
6. What else?
7. Looking back...





1. Home-stay

우리가 이곳에 온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곳 사람들의 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떤 집에서 잠을 자고 무슨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과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는지, 하루의 마무리는 어떠한지 우리는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루 일과시간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나누고, 일을 하며, 그들을 관찰하는 일이었다.

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잘 방안에서 담소를 나누며, 같은 생활공간에서 이곳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바로 Home Stay다. 국내훈련 1개월, 현지 도착 후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본 적 없는 우리가, 이번만큼은 다섯 집으로 각자 흩어져 하룻밤을 보냈다.

물론 불편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보다 더 불편했던 것은, 괜한 손님 때문에 그들이 겪었을 불편함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살림살이를 숨김없이 보여준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자신들이 먹고, 쓰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주면서도, 행여나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는 그들을 보며, 결코 마음 편히 웃고 즐길 수만은 없었다.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Community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안의

고민들은 점점 깊어만 간다. 지하철과 버스 보다는 Tricycle이 더 자연스러운, 도배되지 않은 벽돌집과 물갈이를 유발하는 몇몇 어설픈(?)음식들에도 전혀 이상곳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한국인의 적응력에 감탄하다가도 한편으론 두렵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우리들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기에 이곳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때론 혼란스럽다.

어떻게 보면 지난달 우리를 괴롭혔던 고민들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의 삶을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에 녹아드는 것, 무엇이 이번 활동이 끝났을 때, 후회 없는 활동이었다고 추억할 수 있는 지름길인지 말이다.





사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 많은 것들을 얻으리라 기대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일 수 있지만, 필자(Mim, 이동민)의 경우 비교적 동년배인 Ryle과 함께 하면서 이곳 학생들의 생활, 꿈, 하루 용돈(?), 관심사 등과 같은 비교적 상세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볼 수 있었다. 비행사가 꿈인 그는 장학생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고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들의 나라인 한국을 자신이 조종하는 비행기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멤버들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1박 2일을 보내야 했던 Yun(안재훈)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세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7~8명의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며 잠이 들어야 했지만, 그것마저도 오랫동안 쳐져 있었던 TV소리 때문에 3시간 남짓이었다는 사실.

그럼 대망의 첫 Home stay를 마친 멤버들의 짝막하지만 무용담 못지않은 소감을 들어보기로 하자!

♪ Yun(안재훈) -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웃는 그들을 보며,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된다.

♪ BonA(박은경) - 단지 하루밤만 함께 하였을 뿐인데, 이스마엘의 가족과 이웃들까지 친구가 되어 돌아왔다. 나에게 친절했던 그 분들과 다시 한번 Home stay를 하고 싶다:)

♫ SoO(임수정) -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중한 훈훈하며 즐거웠던, 짝제만 느끼지는 하루였다. 잊지 못할 추억을 또 하나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다시 생각해보아도 감사하며 가슴 벅찬 기억이다.

b EsthER(홍인옥) - 나에게 새로운 가족 하나가 생겼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말이다. 하루였지만 나를 가족으로 받아 준 그들에게 감사하다.

#MiN(이동민) - 언제나 무언가 하나를 끝냈다는 성취감의 이면엔 그들과 조금 더 가까워서, 많은 것들을 공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공허함이 남는다. 나 스스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 여기고 싶다.

우리에게 아직 한 번의 Home stay가 더 남아있다. 다음에는 어떤 집을 가게 될지,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떤 다른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된다.



2. Halloween day

원래 서양문화의 전유물이라 알려진 Halloween day는 이곳에서도 꽤나 큰 기념일이였다. 아마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 문화가 전해진 것이 아닐까?

우리들이 이곳에 오고 나서 크게 놀랐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공동묘지였다. 이곳의 공동묘지는 시가지에 위치해 있고, 시신이 담긴 관도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 안의 땅 위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 금방이라도 관 뚜껑이 열려 시신이 벌떡 일어나 흡사 좀비와 같이 걸어 나올 것 같은 상상이 들게끔 하는 이런 풍경은, 봉긋한 무덤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지며 하얀 소복을 입은 발 없는 처녀귀신이 금방이라도 장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전설의 고향 단골장면에 익숙한 우리들에게겐 적지 않은 충격이였다.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이 날은 하루 종일 공동묘지에 사람들이로 붐빈다. 우리들에

게 보다 많은 Filipino분 화를 보여주고 심은 Kuya morito는 우리들을 공동묘지로 안내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Halloween day의 공동묘지는 우리나라



라의 시골장날의 모습과 유사했다. 공동묘지 이곳 저곳을 지나는 좁디 좁은 길은 이날을 기리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댔고,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먹거리를 팔기 위한 가판대로 넘쳐났다. 그리고 가족의 관 앞에서 하루 종일 머물며 초췌함을 밝히고, 음식을 먹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나라 성묘의 풍경을 잠시 연상케 했다.

문화교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낯선 새로운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의 신선한 충격이 이내 서로를 존중하



는 이해심으로 바뀌고, 마침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거창한 말로써 그 필요성을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문화를 나누는 것,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분이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 보다 많은 것들을 이곳에서 보고, 느끼고, 함께하기 위해선 우리들의 눈과 귀, 마음이 활짝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3. Aurora community

짧은 시간 긴 여운, 오르라. 11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오르라의 푸르름은 우리들의 머릿속을 맴돈다. 숙소의 안락함, Ate elsie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 타지방과 비교를 불허하는 라일의 맛과 신선함, 빼어난 자연경관... 비단 이런 것들 때문만은 아니다. 개발되지 않은 이곳의 맑음과 순수함만큼이나 우리를 감동시켰던 Nanay('어머니' 라는 뜻의 현지언어)가 우리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11월 18일, 우리는 예정일 보다 하루 늦게, 이전 삶의 터전이나 다름없는 Cabanatuan을 떠났다. 특별히 이번 Aurora에서 일주일을 함께하기 위해, Manila에서 새벽같이 달려온 필리핀 YMCA의 Ate elsie, Kuya pabs와 함께 말이다. 고작 일주일이지만, 이곳에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챙겨주었던 Kuya morito와의 작별에, Aurora로 떠나는 우리의 여정이 결코 가벼울 수만은 없었다. 특히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봐' 라는 Kuya의 말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면서도, 한편으론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헤어짐의 아쉬움을 그와 함께한 짝막한 포옹으로 달랠 후 우리는 서둘러 차에 올랐다.

비교적 평지로 이루어진 농촌사 중심지역 Nueva ecija와는 달리 Aurora로 가는



길은 산길의 연속이었다. 소풍을 고대하던 초등학생 마냥 밤잠을 설치던 우리가 차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포장되지 않은 산길, 5초마다 한번씩 찾아오는 급커브와 돌부리들은 Manila에서 우리들을 위해 특별히 공수된 Van이 심히 걱정될 정도로 이르렀다. 흡사 블록버스터 영화 '이바타'의 배경지를 연상케 하는 주변 경관에 한 번, 산 중턱에서 만난



일차선 비포장 도로(만약 도로 중간에서 차 두 대가 맞닥뜨린다면 대략 난감;;)에 또 한 번, 길거리를 수시로 넘나드는 닭과 오리, 개들을 소리조리 잘 피하게 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총알택시에 탄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했던 길잡이 Kuya의 운전솜씨에 또 한 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방에 잊어버리기에 충분했던, Aurora의 야자수와 태평양 바다의 푸르름에 또 한 번... 거짓말 조금



보태어 연속된 고함 소리에 우리의 목은 술렁임이 없었다. 말 그대로 '유명무실'이 보기 좋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Aurora에서의 첫 아침 해가 떠올랐다. Cbnt City보다 서늘한 기후라곤 하지만 그래도 필리핀은 필리핀이었다. 거의 수직으로 내리쬐다시피 하는 태양빛을 등지고 우리는 Nanay 들과의 첫 만남을 위해 Community로 향했다.

각자의 간단한 소개를 마친 후 우리는 Nanay Pina로부터 조직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현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26명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조직은 회장, 총무, 서기 등의 간부를 둔 체계적인 틀을 이루고 있었고, 말 그대로 Women



empowerment(이하 W.E)에 걸맞게 남자들은 이곳에서 주도자라기 보다는 본업인 농업에 주로 종사하며 조직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약 2년 전, 주엄인 비농사 외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길을 보



색하고자 했던 이곳 사람들과, 여성의 역할과 권리 신장을 하나의 목표로 Project를 진행하고자 했던 필리핀 YMCA가 기막히게 맞아떨어져 시작하게 된 W.E프로그래임을 일명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소액대출 제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필자에게 이 제도는 익히 들어 굉장히 친숙했고, 특히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마이크로 크레딧의 창시자 무하마드 유누스는 이미 경제학도들 사이에선 빌 게이츠만큼이나 유명한 인물이다.

가난의 대물림, 부익부빈익빈을 퇴치하고자 빈민들에게 소액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주면서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그 선량한 취지를 널리 인정받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미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다.

즉 다시 말해, 빈민들이나 서민들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은행 문턱을 넘기가 힘들었고, 때문에 초기 창업을 위한 아주 적은 금액의 투자도 하기 어려웠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이런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약간의 돈을 무담보와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빌려주기 시작한 것이다. 저리로 돈을 대출해 준다는 것, 소액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하지 못한, 위대한 첫 걸음이었다. 상대적 금융 약자에 대한 혁명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다.

덧붙여 그가 이 제도에 바탕을 두고 설립한 그라민 뱅크는 현재 자금 회수율이 95%에 달하고, 방글라데시에서 수 천여 개의 지점, 수 백만 명의 가입자를 거느린 건실한 은행으로 성장했다.



이곳 사람들을 역시 반복된 베행사로 한정된 수입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생활을 꿈꾼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높은 이자와 담보를 요구하는 제도금융에서 융자를 받는 것도 마땅치 않았다. YMCA는 이런 조직 구성원들에게 한 가정당 8천 페소(한화 약 20만원)씩을 1%의 저리로 빌려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조금씩 갚게 했다. 구성원들은 이 돈으로 작은 상점을 운영하거나, 양돈 사업을 위해 새끼돼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이 Project를 비단 이곳에만 국한시키지 않기 위해, 상환된 원금은 또 다른 지역의 Project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1%의 이자마저 그 지역 Community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한 재투자와 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현세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화두가 이곳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 했다.

단순히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주어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 이 Project 목표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Community에 직접 들어가 그들의 삶을 같이 해본 사람으로써 지켜본 그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와 가능성에 대한 확신,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Project를 매개로 한 끈끈한 유대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다. 어쩌면 그들이 양돈사업과 상점운영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알맹이는 이 Project를 통해 그들이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일 것이다.

Project 진행과정을 살펴보는 것 이외에 우리는 Nanay 의 요청대로 초등학교 Class가 없는 등, 일 양일간 Community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가졌다. 자연과 예체능 활동을 주제로 개구리의 진화과정을 배우고, 한 때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M본부 '브레인 서오이오'의 간판코너 율쟁이 율동을 함께 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간판코너인 태권무와 종이 접기도 배워드리지 않았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 무언가를 하기엔 애매한 시간, 그래서 더 더욱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단 그냥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 속에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들에게 보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Nanay들의 배려로 우리는 활동 중간중간 Aurora의 보석과 같은 이곳 저곳을 구경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농산물과 공산품이 집결되는 DRY market에서 Nanay들과 먹었던 Halo-halo(팥빙수), 테평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원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던 백명수(사나워서) 원숭이들, 개울가 옆에서 손으로 밥을 먹으며 Nanay들과 기울었던 보드카 한 잔과 코코넛... 이제 모두들 기억의 책장 한 권에서 쌓여가는 먼지에 흐릿해져 갈 추억일 뿐일 테지만, Nanay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먹었던 Halo-halo의 맛은 아직도 우리들의 머릿속에 오롯이 남아 있다.



시간은 냉정하다. 짓궂다. 하지만 시간은 소중한다. 마치 한 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간 일주일, 우리는 그들과 함께했던, 값있던 시간들을 마무리해야 했다. Ending presentation. 한국가요와 댄스를 배우고 싶다는 Nanay들의 요청으로 전 날밤 부랴부랴 준비한 Girls Generation의 'Gee'와 우리들이 이제껏 해왔던 태권댄스, 사물놀이를 선보였다. 음향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한 덕에 야심차게 준비한 댄스는 별다른 호응을 못 얻었지만, 사물놀이는 그야말로 Nanay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특별히 준비한 Nobody를 함께 추며, Nanay들이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Filipino전통 춤의 스텝을 함께 밟으며 다가오는 작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남는 건 사진 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로 헤어짐을 위로할 순 없겠지만, 서로 함께했던 찰나, 마디마디가 하나의 그림으로 저장되는 순간 그들과 하나의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함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는지도 모른다.

헤어짐의 순간, 눈물을 보이지 않던 필자에게 다가와 ‘Strong’ 이라고 외치던 Nanay dely, 그녀의 표정을 잊지 못한다. 벌겍게 충혈된 Nanay의 두 눈이

이 상황의 모든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과 다시 만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알았기에, 그 순간만큼은 재회의 약속을 선불리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졌던가.



헤어짐이란 이토록 힘들고

아쉬운 것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기억의 손길은 세달 전 한국에서의 작별을 준비하던 우리들 각자의 풍경들을 더듬고 있었다.

익숙함과 친근함으로부터의 이별은 늘 이렇듯 반복된다.

돌아오는 차 안, 풀어지는 긴장과 시원섭섭함의 노곤함 속에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Valle cruz의 분위기와 확연히 대비되는 Aurora, 그 둘 사이의



혼란 때문에, 차창 밖 풍경으로부터 상영되는 파노라마를 깨닫게 잊은 채 우리들의 눈동자는 먼 산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Aurora community의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이루어 나가고자 했던 것은 더 나은 생활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더 많은 수입과 이로 인한 윤택한 삶,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희망사항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그들의 열망은 자신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Valle cruz의 사람들은 좀 다르다. 길 옆에 흐르는 오수로 손을 씻고, 쓰레기 더미를 헤집고 다니며 하루 일당을 벌 지어 정 결코 웃음을 잃지 않는다. 또한 이곳의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은, 평일 D.C.C의 수업을 위해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것이다. 자신들은 그저 농촌지역의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해 살아야 하는 한 가정의 살림꾼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원초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차이점을 만드는가? 즉,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진 그들의 생활방식이 그토록 다른 건 무엇 때문인가? 과연 그렇다면, 주어린 환경에 만족할 줄 아는 Valle cruz의 사람들이 Aurora community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Cbnt. City로 돌아온 후 각자의 Report를 작성하며, 우리들이 가졌던 고민들과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릴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의지' 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의지' 가 Valle cruz의 여성들에게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두 Community간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Helper의 역할이다. 즉, 사람들의 의지를 일깨우고, 나아가 한곳으로 집중시킬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Aurora의 경우 그 역할을 YMCA가 한 것이고, Valle cruz의 경우 그 역할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이렇게 본다면 흐름이 분명해진다. 우리가 Aurora를 찾은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만족과 열망, 이 둘 사이의 방향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저마다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각자의 답을 내릴 수 있으리라. 결코 현실도피가 아님을 밝히며... 우리들의 선택은 바로 중도다!!!



4. Tae-kwon dance class

지난달 말부터 모집에 들어가 매주 월, 수, 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두 시간씩, YMCA Office 주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Tae kwon dance class. 11월은 Class가 자리잡고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달이었다. 매일 꾸준히 참여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전 시간에 배운 동작들을 복습해보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수업에 더욱더 열의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아이들과 수업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2월 Class가 마무리 될 때, 별도의 졸업식을 하면서 졸업장을 나눠주고, Presentation을 갖기로 하였다. 수업하는 두 시간 동안 아이들과 단순히 함께 하며 즐기는 것도



중지만,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무언가를 주고 싶은 우리들의 작은 욕심 때문이었다.

YMCA Compound 내의 반 지하 공간에서 어둠과, 먼지와 싸워가며 갖는 수업



은 가끔 우리들의 목을 아프게도 하지만, 점점 더 우렁차지는 아이들의 구령소리
 리는 이 모든 아픔을 잊게 한다. 때로 집중력이 흐트러져 수업을 힘들게 하는
 몇몇 아이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가도, 아이들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자고
 대독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시금 수업을 이어나갈 힘을 얻는다. 누가 시켜
 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은 나아가 우리가 이곳에 온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다. 수업이 조금이라도 지겨울라 치면 아이들이 먼저 이 노래들을 부른다.

우리가 알던 것, 우리가 해오던 것들을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뿌듯하다. 먼 훗날 그들이 우리를 기억해주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그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5. Valle cruz

우리들이 필리핀까지 와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편안함을 느낀다면 거짓말일까. 일주일간 오르라로 떠나 있으면서, 그곳 아이들의 얼굴에서부터 오버랩 되던 Valle cruz의 아이들과, 길을 오가며 Street 고양이와 수업이 마칠 때 바다 떠올렸던 ‘아띠’ 는, 우리들에게 두고 온 것들과 살던 곳이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준 했다.

Valle cruz. 일직선의 길을 따라 모인 집들 주변으로 펼쳐진 광활한 들판, 이렇듯 단순한 구조의 마을이 또 있을까. 가장자리에 위치한 쓰레기 산으로 더욱

유명 해저케바린 Barangay. 그곳엔 그곳의 이름과 같은 휴양지 발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크루즈 선의 안락함도 없었다.

11월 역시 D.C.C Class는 계속되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 장난기는 여전했다. 아니, 처음에 우리를 낯설어 하던 것과는 달리 요즘은 살금살금 다가와



우리들에게 'X침' 을 놓는 것을 보면, 장난스러움은 더 늘었겠다. 그만큼 아이들과 우리들 사이에 드리워져 있던 벽이 차츰 허물어져 가는 것이리라.



한편 수업내용에도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 매주 금요일마다 해왔던 태권댄스가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다고 판단, 문을 닫았다. 그래도 체육활동은 지속해야 했기에 대신, 우리들은 풍선과 사탕, 의자 등을 이용한 게임으로 대체했다.

특히 이런 게임들은 팀원 Bona가 특별히 소포로 공수해 온, 메이드 인 코리아 종합캐디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밝혀준다. 우리들의 게임은 모두 팀을 나눠 진 행됐고, 이긴 팀에게는 사탕이, 진 팀에게는 먹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벌칙이 주어졌다. 덕분에 어떠한 일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反對급부)가 으레 주어 진다는 세상살이(?)의 이치도 함께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거든 양치질을 먼저 하라는 충고도 잊 지 않았다. 이정도 센스는 있어야야 라온아띠 포스(4th)답지 않겠는가?

6. What else?

- Coming soon, Christmas!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한 여름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라서 인지 길거리나 시청, Mall이나 상점 어디를 가도 트리 볼 수 있을 만큼 그 열기는 뜨겁다. 저녁시간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켜보는 뉴스 프로그램의 엔딩 자막에는 크리스마스 D-Day가 두 달여 일 전부터 카운트된다.

필리핀만의 독특한 크리스마스 문화를 한가지 소개하자면, 성탄절을 전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소규모의 악단(樂團)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집 앞에서 몇 가지 캐롤을 부른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지만 어떤 일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따른다는 것. 그들은 노래가 끝난 후 조용히 바꾸니 하나를 내 놓는다. 흥을 돋구는 건 좋지만, 먼저 원해서 들은 노래도 아닌데 대가를 요구하는 그들은 진정한 철면피인가? 이것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악단이 아니라 악당이다 악당!!

흥분하지 말자, Kuya morito의 말대로 그것은 단지 필리핀 문화일 뿐(It is just Filipino culture!)이다!

-Published our story in news paper of Nueva ecija high school !

오로라의 여정을 마치고 온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만난 Kuya morito는 활짝 웃으며, 며칠 전까지 우리들에게 영어 수업을 해주셨던 Mam josa 선생님께서로부터 받았다는 한 부의 신문을 내밀었다. English Class의 마지막날, 우리들의 기사를 학교 신문에 게재할 것이라던 선생님이 실천에 옮긴 것이다! 기사는 학교 신문의 편집부원으로 있는 Mam josa 선생님의 제자 Ersatz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그는 우리들과 마지막까지 English class를 같이 한 친구였다.

한국에서 온 우리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우리가 주로 하는 일, 그리고 인상 깊었던 English class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세심하게도, 앞서간 3기들의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제껏 활동하면서, 정말 이곳 사람들이 우리를 어



평롭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 대한 이번 기사는 뜻 깊고 소중한다.

활동 잘 마무리하고, 필리핀과 진정한 친구가 되길 희망한다는 기사의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바라던 에디터의 꿈을 이루길, 새얼같이 창창한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고, 아울러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한다.



Granary wins 1st place in

The feature page of The Granary, one of the official school papers of Nueva Ecija High School, won 1st place in Luzon during the national competition on feature page sponsored by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 last February - March. The awarding ceremony was held at Chamber 4 National Broadcasting Network during the "Singing Galing" live show hosted by Cecil Gaitano Alvarez on June 13. Dinaaya-Araon, adviser of the Granary, attended the awarding ceremony, together with Lydia Mayot, Education Supervisor I, Mada of DepEd Nueva Ecija, Ms. Loreto Ramirez, lead teacher of English department, Andrea Canales, lead teacher of mathematics department, Muna Daza, co-advisor of the Granary, and John Joseph Sobson, Karen Lora and Rhonney Rhon Kevin France, all staffers of the Granary. Trophies were given to the winners in the awarding ceremony while the P12,000 cash prize was sent later through bank transfer. The winners were given a sumptuous dinner after the awarding ceremony of the NCCA. The contest aimed to encourage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feature National Arts Month events in their school papers through editing, photos and other art pieces. The NCCA opened the contest to secondary and collegiate level in both public and private schools nationwide. Thirty three schools joined the secondary level while 23 colleges and universities competed in the tertiary level. Based on the given guidelines, the commission will select one winner from Luzon, Visayas, Mindanao and National Capital Region. But after evaluating the papers three won in Luzon, one in Mindanao, and one in NCR while in Visayas only citation was given to the Langbeens' Voice of the Visayas Bakal High School evening session. Other Luzon winners include the Ancestral of Batangas Province High School and Ang Ulabay of Pando High School in Balicua while Mindanao winner is The Reflector of Daniel Aguasido National High School while Sargolaya of the Annapur High School in Calocan won in the NCR.



SWEET VICTORY: The Granary Family during the awarding with NCCA Chairman Cecilia Gaitano Alvarez at NEN 4.

Lustrero seeks cooperation of schools to celebrate World Teachers' Day

Education Secretary Armin Lustrero encouraged all public and privat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o cooperate in the 2010 Teachers' Month Campaign and celebration of the World Teachers' Day on October 5. With the theme "My Teacher, My Hero", the YMC and teachers' day focused on the noble profession of teaching and appreciation to teachers and mentors. The campaign to celebrate teachers' day aimed to generate widespread awareness and support for the profession. They need to use the occasion to showcase the unique role and service that teachers play in guiding families, strengthening of communities, and building the



SWEET AND THOUGHTFUL: Students give green Zanghams.

Typhoon 'Juan' showers NEHS 105th anniversary

Despite the bad weather condition brought by typhoon "Juan", the Nueva Ecija High School celebrated its 105th Founding Anniversary at the gymnasium on Oct. 18-20. However, due to frequent rain showers brought by the typhoon the parade and street dancing activities were cancelled.

Raonatti second batch

The group arrived at the time where most YMCA activities are lined up and the same with member-schools of YMCA. Although giving service to the community is their primary job here like the first batch, this team has been invited to perform in some activities of the participating schools of YMCA.

They first performed during the opening program of YMCA Academic Competitions held at Nueva Ecij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October. Their second performance was at Nueva Ecija High School's 105th Foundation Day showcasing their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and taekwondo skills.

This group is eager to learn tagalog for them to be fully understood by our people especially the kids they are teaching at the day care center in Valle Cru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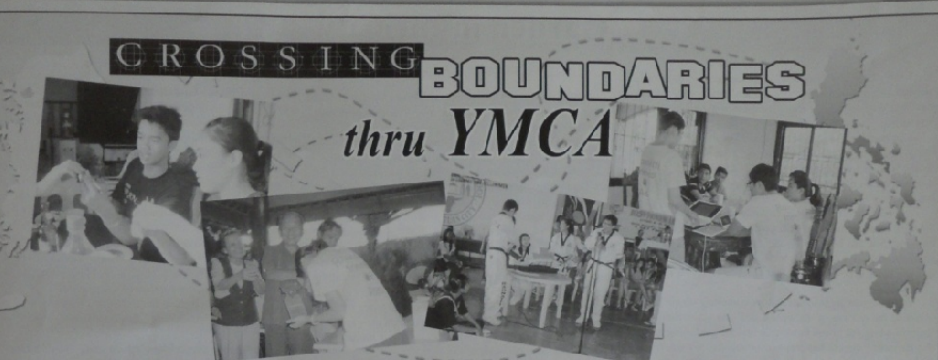
Under the patient guidance of the chair of the youth program's committee, Isagani Panginon together with Morito Tatel, the secretary general of YMCA Nueva Ecija, they observed the conduct of SK election and the commemoration of the departed loved ones of the Filipinos in the town of San Leonado last November.

NEHS students befriended them while attending their language class sessions. They get to share and exchange substantial ideas during the class and gain each other's respect. When asked to share their thoughts on the question "What makes a nation great?" all of them came up with the same answers though expressed differently- a good leader, an economist and one who welcomes breakthroughs in technology, adding, a nation according to them, greatly needs its concerned people.

In exchange Raonatti shared Kimchi, Korea's number 1 food to the Hi-Yers and taught them the use of chopsticks.

Yun, Min, Enoch, Bona, and Su are looking forward to spending Christmas here in the Philippines because they have heard how unique Filipinos celebrate this season. And with

CROSSING BOUNDARIES thru YMCA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brings people together. It connects people of all ages and backgrounds to bridge the gaps in community needs. The members have been listening and responding to the communities. They believe that everyone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grow and thrive. YMCA has local presence and global reach. It mobilizes local communities to effect lasting, meaningful change. And the YMCA of Nueva Ecija is an active participant of this program, as well as the H-Y club of Nueva Ecija High School.

Isagani Panginon, YMCA Nueva Ecija Chair, Committee Programs Being the chairman in program committee and youth programs, Isagani Panginon, a master teacher II of Nueva Ecija High School, is taking his worthwhile projects to effective use of the time. He is currently participating in the

Matt, Sun, Aron, Gabby and Nina all five smart and responsible Raonatti left the country with heavy heart because they have gotten to love the kids, the work, and the people they've encountered here.

A friendship was formed between them and the people they worked with. Raonatti second batch The group arrived at the time where most YMCA activities are lined up and the same with member-schools of YMCA. Although giving service to the community is their primary job here like the first batch, this team has been invited to perform in some activities of the participating schools of YMCA.

They first performed during the opening program of YMCA Academic Competitions held at Nueva Ecij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October. Their second performance was at Nueva Ecija High School's 105th Foundation Day showcasing their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and taekwondo skills.

For them to be fully understood by our people especially the kids they are teaching at the day care center in Valle Cruz. Under the patient guidance of the chair of the youth program's committee, Isagani Panginon together with Morito Tatel, the secretary general of YMCA Nueva Ecija, they observed the conduct of SK election and the commemoration of the departed loved ones of the Filipinos in the town of San Leonado last November.

NEHS students befriended them while attending their language class sessions. They get to share and exchange substantial ideas during the class and gain each other's respect. When asked to share their thoughts on the question "What makes a nation great?" all of them came up with the same answers though expressed differently- a good leader, an economist and one who welcomes breakthroughs in technology, adding, a nation according to them, greatly needs its concerned people.

In exchange Raonatti shared Kimchi, Korea's number 1 food to the Hi-Yers and taught them the use of chopsticks.

Yun, Min, Enoch, Bona, and Su are looking forward to spending Christmas here in the Philippines because they have heard how unique Filipinos celebrate this season. And with

the use of chopsticks. Yun, Min, Enoch, Bona, and Su are looking forward to spending Christmas here in the Philippines because they have heard how unique Filipinos celebrate this season. And with



7. Looking back...

- Kuya Yun

벌써 활동 기간 중에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이 시간이 정말 빠르게도 지나갔다.. 아직도 반이라는 시간이 남긴 남았지만 반이 지났다고 하니 지나왔던 반이라는 시간을 다시 돌아 보게 된다. 나에게 이 2개월이란 시간은 정말 소중한고도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던 같다. 한국에서 지금 같은 시간을 보냈다면 알지 못할 내 자신 그리고 평생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뻔 했던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다시는 잊어 버리지 못할 추억들을 나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알았고 얻었다. 11월 달은 카비나투안에서 보낸 시간보다는 다른 곳에서 보낸 시간이 더욱 생각이 난다. 11월 셋째 주엔 필리핀 집 문화를 체험 하기 위해 Home stay를 했다. 하루 밖에 지내지 않았지만 나에게겐 정말 길고도 긴 하루였다. 정말 솔직히 말 하자면 집에서 자는 거였지만 집이라고 하기엔 러무니 없었다. 문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바닥도 그냥 흙 바닥이고 침대조차도 없었다.

어차피 하루 지낼 곳이기엔 하루만 참자는 생각에 집을 들어 섰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착각에 불과 했다. 내가 지내던 곳이 아니기에 처음 이런 곳을 접하기에 이 사람들로 볼행 하겠지-? 라는 생각이 오만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필리핀 사람들은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욱더 행복 하려고 노력 하는 사람들이
 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해 하고 웃을 수 있고 가족애가 충만 한 것을
 보며 정말 내가 생각하던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 주엔 Aurora라는 곳에 갔다. 카비나투안에서 4시간이 걸
 리는 곳으로 갔다. 정말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절경 속에 마을이 붙잡고 있었다.
 그 마을에선 women empowerment라는 이름 속에 마을 어머니들이 모여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남편은 밖에 나가 농사를 짓거나 일을 나가지만 집에만 있어야 하는 어머니
 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도중에 필리핀YMCA의 도움을 받아 돼지 사
 육을 하고 있었다. 많은 인원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곳에서 주일을 보내면서 만난 어머니들은 더 이상 다른 어머니들이 아니
 였다. 라온아띠의 어머니가 되고 만 것이다. 이 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지만 많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주일
 뒤 집으로 와야 하는 시간은 정말 슬픈 시간이었다. 어머니들을 뒤로 하고 다
 시 집으로 와야 하는 그런 심정이라 할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 카비나투안의
 로 넘어와 발리크루즈 어머니들을 통해 가능성을 찾고 똑 같은 프로그램 등을 만
 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카비나투안에 집중 한다.



-Ate Bona

11월. 9월과 10월에 비하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단, 그래서 좀더 필리핀의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한 달이었다. 제일 큰 변화는 진정한 필리핀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다.

먼저 오르라라는 곳에서의 일주일 은 나에게 정말 잊지 못할 선물이었다. 정말 서툴고 보잘것 없던 우리에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살펴 주었던 나나이(엄마)분들. 실제로 함께 한 날은 5일밖에 되지 않지만, 그 5일 동안 받은 것들로 인해 헤어짐이 너무 슬펐고, 정말 언젠가 다시 한번 오르라를 꼭 다시 찾아야 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우리는 이곳 필리핀에서 또 다른 어머니들을 만난 것이다.

사실 오르라에서 우리 힘든 점도 많았다. 늘 있던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어떤 조그만 오해들로 인해 의욕이 상실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우리 그곳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돌아와서 우리 활동에 정말 많은 보탬이 되었다.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켜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첫 홈스테이트 나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페인트칠도 되어 있지 않은 벽돌시멘트 집에 고양이와 개가 집 안팎을 들락날락 거리고, 바닥엔 개미들이 우글거리는 이 곳에서의 하룻밤은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힘들지 몰

라도, 나에게겐 그저 새로운 경험이었다. 나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는 마루에 나가서 자고, 음식은 입맛에 잘 맞을까 고민하고픈 사람들... 그런 진심들이 나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었고, 정말 다음에도 (물론 그들이 불편하지만 양대면) 다시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 옆집에서 밤 늦게까지 함께 수다를 떨던 친구들도 벌써 보고 싶다.

그리고 또 정말 따뜻하게도, 우리 라온아띠팀이 누에바에시아 하이스쿨 학교 신문에 실렸다. 감동한 소개와 랭귀지클래스 마지막 파티때 이야기 나누었던 인터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라온아띠팀이 누에바에시아 안의 일부분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3개월 동안 우리 이미 성격도 외모도 필리피노가 되었고, 그들도 우리를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친구로 본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 이제 매년냄새도 일상이 되어 아무 힘듦이 없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이웃친구분들에게 연락해서 안전하게 트라이시클을 타고 다닌다. 이런 시간이 이제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지만, 남은 두 달도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즐겁게 살아야겠다. 정말 바빠 12월도 파이팅이다!



-Ate SoO

이 페이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을 돌이켜보게 되니, 또 다시 여러 순간들의 감동과 기억들이 떠올라 나를 웃음짓게 만든다. 이번 한 달은 지난 둘째 달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리가 아닌, 이웃과 친구들과 보내볼 수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여럿 만나 친해지며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우리의 일정 중 Home stay와 AURORA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나는 이 시간들에 대해 정리하고 싶다.

먼저 홈스테이의 순간을 돌이켜보면, 어쩌면 무엇을 느끼기도 힘들만큼의 짧은 시간, 단 하루였지만 나에게겐 이미 그 시간들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 마음 한 켠에 자리잡게 되었다. 어르신들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대화라고 할 만큼의 이야기와 오고 가지는 못했지만, 마주하며 바라보는 눈빛과 마음만으로 이미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또한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는 언제나 미소를 띄우며 시작하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오로라에서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오로라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어디를 보더라도 눈을 찔 수 없을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과 그 안에서 나를 사랑과 친절로 맞아주었던 Nanay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여기서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또한 나에게 있어 오랜 시간 간직하게 될 가슴 따듯했던 즐거웠던 기억들로 자리잡았다. 여러가지 풀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지금 다 적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짧은 시간 정말 마음속 따스이 정이 많이 들었고, 마지막 헤어지는 날엔 서로 붙어지는 눈시울을 감추기 힘들었다. 벌써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이 하나 둘 모여, 나에게 한아름 큰 추억으로 마음속 깊이 자리잡아 갈 때, 나는 계속 그때를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며 그 기억에만 안주하기보다는 계속 우리 앞에 훌륭하고 멋지게 펼쳐질 내날을 기대하며 또다시 한걸음 움직인다.

이렇게 짧게나마 이번 한 달을 정리하며 아쉬움을 뒤로한다. 이곳에서 언제나 높고 푸른 하늘만큼이나 뜨겁고 파란만장한 우리의 12월을 부푼 가슴을 안고 활기차게 맞이한다.





-Ate EstHER

11월 달에는 익숙한 Cabanatuan city를 뒤로한 채 새로운 곳인 Aurora를 방문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었다. 새로운 곳을 간다는 자체만으로 설레었고, 익숙함을 떠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설레임이든 두려움이든 나의 감정을 한 단어로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확실한 것은 새로운 곳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단련시킬 수 있었던 기회였다는 것이다.

필리핀에서의 나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나는 처음의 열정을 잊었으며, 처음의 마음가짐을 간라한 채 이곳에 흡수되고 있었다.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잠재워 질 때쯤, 그리고 그 새로움이 익숙해져 나의 생활이 될 때쯤 떠나야만 했던 새로운 곳에서의 미션은 매 순간순간 새로운 깨달음과 가르침을 선사했다.

한국에서 변하러 돌아오겠다면 마음가짐이 열어져 변하는 것이 힘들다고 단정 지을 때쯤 11월은 다시 나에게 가르침을 안겨다 주었다. 나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변하러 노력할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변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노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주었으며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기에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잠시 가야 하는 길을 잃어 방향할

때 옆에서 잡아주기 위해 나를 항상 바라봐 주는 사람들을 그리고 길을 잃어 잠시 주춤하고 있는 나에게 따뜻한 응원과 함께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할 뿐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의해 상처 받았었고, 사람들에게 의해 아팠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상처를 치료받고 아픔을 치유 받고 있다. 결국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존재한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





-Kuya MiN

후회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 익숙하던 무언가와와의 헤어짐, 그 뒤 페이지에는 항상 어김없이 찾아와 일기장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기억의 뒷모습만 좇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앞으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후회할 일을 되풀이 하는 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한 인간이다.

왜 그때는 그들을 보고서 어색한 웃음만 지어야 했을까? 왜 그들의 눈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눈빛에서 자꾸만 무언가를 읽어려고만 할까? 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일지형 나사에 십자 드라이버를 갖다 대는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는가?

쏘아 놓 화살이 시공간을 무시했다. 오르라. 마치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이, 잣아드는 캠프 파이어의 불꽃과 같이 아쉬움 속에 사라져갔던 오르라에서의 시간들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까지도 나를 괴롭혔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활동으로 채워진 추억들의 여운은, 그때까지도 나를 이런함에 몰서 리치게 만들었다. 어머니들과 함께 먹었던 Halo-halo와 보드카, 함께 거닐었던 하늘빛 태평양 해변은 이 모든 이야기들의 증표로써, 복선으로써 가슴속에 아로 새겨졌다.



세 달이 지났다. 한국으로의 전화 통화가 점차 뜸해진다. 이방인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Tricycle 뒷좌석에서 맞는 바람이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든다. 팔과 다리도 많이 새까맣아졌다. Kuya Pabs는 현지 인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했지만...

까마득하게 느껴졌던 5개월, 적응과의 싸움이 될 거라던 충고, 이제 모두 남 얘기다. 나는 이곳에서의 생활과 과거 나 자신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 그로 인한 고민과 방황들로 파여진 굴곡들을 헤쳐가는, 헤쳐가야만 하는 사공이 됐다. 어느덧 그 여정 속의 나는, 종반을 향해 노를 젓고 있다.

